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박 천 상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

존경하는 환경기술인, 환경인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정해년(丁亥年)을 보내고 큰꿈과 희망을 맞이하는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가환경보전과,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온힘을 다해주신 환경기술인 여러분들께서 일구어낸 성과들은 과거의 시간으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불철주야 애써온 모두의 노고에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담아 민생과 경제, 그리고 환경을 중요시 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환경기술인들의 참 뜻을 잘 헤아려 주리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고가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해양오염사고로 기록될 서해안 유류 유출사고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을 세계에 고하는 치욕적인 사고였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역민의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빼앗아간 이번 사고는 환경재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안의 먹빛 재난으로 가슴치던 우리 모두의 고통과 절망이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기나긴 행렬로 다행히 조금씩 치유되고 있어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불운이라고 한탄만 한다고 변하지 않듯이 오히려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로 삼아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앞길을 과감하게 헤쳐 나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존경하는 환경기술인 여러분!

이제 묵은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했습니다. 환경기술인 여러분들과 환경인 모두가 단합과 친목, 화합을 이루어 환경인 가족 모두가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집시다.

본 연합회에서도 각 지역협의회별 화합과 친교를 더욱 공고히 하여 명실상부한 환경기술인들의 구심적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면을 빌어 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1인1구좌 갖기 운동인 “환경기술인 발전기금 모금 운동”에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새해 무자년(戊子年)은 쥐의 해입니다. 쥐는 부지런하고 왕성한 번식력을 가져 다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는 환경기술인들의 여망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이같은 길운이 온 누리에 퍼져 우리 환경기술인들이 기지개를 펴고 더욱 당당하게 환경전문가로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한해가 되어 줄 것을 바래 봅니다.

19개 지역협의회의 발전과 환경기술인, 환경인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감사합니다. ☺